

PR, Public Relations, 홍보(弘報), 광보(廣報) 언제부터 생긴 말인가?

글 신인섭 |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
1929insshin@naver.com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Public Relations라는 말보다 줄인 말인 PR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7년 전 한국광고학회 광고학 연구에 필자가 쓴 일이 있는데, 1947년 5월 말에 미군정 조직 내에 민간공보처(Office of Civil Information)가 창설된 뒤였다-민간공보처라 부른 이름은 내가 지어 부른 이름이다. 미군 군정 시대 문서가 비밀해제된 뒤에 과천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찾은 미군 정보과(G2) 문서에서 발견했다. 물론 Public Relations 라는 말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사용된 것은 1897년으로 미국철도협회가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PR 또는 Public Relations 혹은 이 영어 낱말을 ‘퍼블릭 릴레이션즈’라고 우리말로 쓴 기록은 해방 전에는 없었다. 해방 이후에도 정확히 언제 어디에 이 낱말이 처음으로 나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듯 하다. 겨우 찾은 것이 동아일보 1947년 4월 18일 1면 머리 기사에 나온¹ ‘아시아 10개국회(10箇國會) 6월 UN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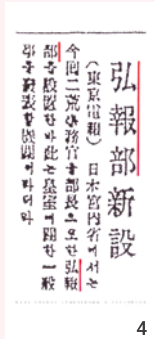
(主催)로 상해(上海)서’인데 이 기사 가운데 ‘UN홍보부차장(弘報部次長)’이란 말이 나온다. 10여년이 지나서 1959년 2월 27일 동아일보 ‘뒷골목’ 칼럼²에는 ‘파블릭-리레이션(PR)’이란 말이 나온다.



- 1 ‘홍보부차장(弘報部次長)’이란 말이 있는 동아일보 1947년 4월 18일 기사와 Public Relations라는 말이 있는 미 군정기내 내의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문서
- 2 1959년 2월 27일 동아일보 ‘뒷골목’ 칼럼에 나오는 ‘파블릭-리레이션(PR)’이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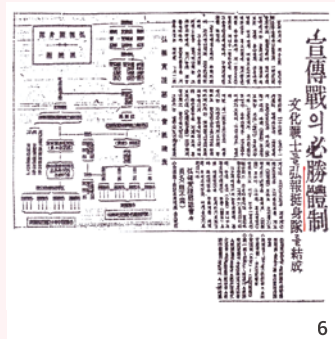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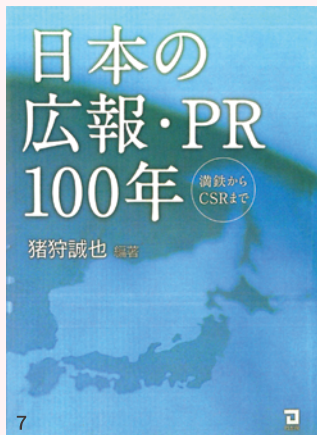


6

- 3 1921년 5월 28일 매일신보(每日申報) 기사. 블라디보스토크 주둔 일본군에서 나온 보도에 실린 ‘홍보부발(弘報部發)’이란 말.
- 4 1923년 12월 17일 조선일보. “홍보부 신설(弘報部新設)”이란 제목의 기사. 일본 궁내성(宮內省) 홍보담당관 신설에 관한 기사
- 5 1936년 6월 3일 조선일보. ‘만주 언론 통제자 홍보협회를 설립(滿洲言論統制次弘報協會를設立)’이란 보도.
- 6 1943년 12월 25일 조선 총독부 조선어 기관지 매일신보(每日新報) ‘선전전의 필승 체제. 문화전사들 홍보정신대를 결성(宣傳戰의 必勝體制. 文化戰士들 弘報挺身隊를 結成)’이라는 제목의 4단 기사와 조직도

PR이나 홍보란 말에 대해 해방 전후 조선일보 검색을 한 결과 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홍보라는 말보다 PR이 더 많이 사용되었고, 70년~80년대 이후에는 PR이란 영어 사용은 차차 줄어들고 90년대에 들어서자 홍보라는 말이 압도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홍보라는 말이 어느 나라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찾은 것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검색에서 나온 홍보(弘報)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겹다리로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每日申報 ▶ 每日新報)도 뒤졌다. 그 결과 동아일보에 弘報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1921년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발 기사였다. ‘해삼위정변기(海蔘威政變起)’ 즉, 그 무렵 우리가 해삼위라고 부르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인데 ‘홍보부발(弘報部發)’³로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홍보란 말이 등장했다. 그 뒤 몇차례 홍보라는 말이 블라디보스토크 발 기사에 나왔다. 그리고 1923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에는 일본 황실 관련 업무에 관한 보도를 다루는 홍보부(弘報部)⁴를 두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다. 1930년대에는 만주에서 나온 보도에 홍보란 말이 몇

차례 신문에 나왔는데, 1936년 6월 3일자 조선일보에는 ‘만주 언론 통제자 홍보협회를 설립(滿洲言論統制次弘報協會를 設立)’⁵이라는 제목의 2단 크기 기사가 있었다. 1940년 8월 일본 정부는 조선, 동아일보를 강제로 폐간했고 그 결과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이 유일한 조선어 일간지가 되었다. 1943년 12월 25일에는 ‘선전전의 필승 체제. 문화전사들 홍보정신대를 결성(宣傳戰의 必勝體制. 文化戰士들 弘報挺身隊를 結成)’⁶이란 4단 크기 기사와 표가 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쯤 되면 홍보란 말이 언제부터, 누가, 왜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려니 했더니 또 질문이 생겼다. 왜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본군과 만주철도회사에서 홍보라는 말이 나왔으며 누가 그 창시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실마리가 풀린 것은 10년 전 출판된(2011) ‘일본의 광보·PR 100년(日本の 廣報·PR 100年)’⁷이라는 책을 사서 본 뒤였다. 간단히 결론을 말하자면 홍보란 말과 그 조직을 군대 내에 시작한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출병한 일본군 참모장 다카야나기 야스타로우(高柳保太郎)이었고 그를 후원한 홍보를 이해



近畿廣告社〔合同社〕京華社, 大和廣告社, 協和廣告社, 金水堂, 太平廣告社, 勉強社, 宗政修文館, 弘報社, 以上 8 社⁽¹²⁾

正路喜社〔合同社〕八昭堂, 青年社, 日東通信社, 中外通信社, 萬勉通信社, 昭榮通信社, 弘信社, 大明通信社, 太陽通信社, 宗田組, 大河組, 萬歲社, 博生堂, 金蘭社, 清水新報社, 愛國通信社, 以上 16 社⁽⁷⁾

日本廣告社〔合同社〕告天社, 弘報堂, 廣告社, 豊國通信社, 自由通信社, 以上 5 社

8

7 '일본의 광보·PR 100년' 책 표지

8 홍보사(弘報社) 및 홍보당(弘報堂)이라는 광고대행사 이름. 자료: 일본광고발달사(상). 1976. 동경: 일본전보통신사. 446, 447 페이지

하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와 부총재인 고위 외교관이 있었다.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이 만주에서 홍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중일전쟁 무렵에는 강력하고 방대한 만주홍보협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일본의 전쟁 수행을 보조했다. 이들이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참전 후 윌슨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된 공보위원회(The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CPI의 활동은 PR이었다. 일본군의 블라디보스토크 출병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은 긴 이야기가 되므로 생략한다. 다만 1936년 7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뒤 만주의 언론 통제를 위한 기구로 만든 것이 만주홍보협회였음은 사실이다.

일본에 홍보란 말이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말 광고대행사가 출현하던 무렵인데 두 광고대행사(광고대리점) 이름에 '홍보당(弘報堂)', '홍보사(弘報社)'⁸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는 '홍보라고 하지 않고 광보(廣報)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해방 후 일본에 진주만 점령군 사령부, GHQ라 부르던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민주화 정책의 하나

로 일본 정부 모든 기관에 Public Relations 부서 설치를 지시할 때 Public Relations라는 말 번역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홍보(弘報)라는 말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 해방 전 만주홍보협회가 저지른 일들의 언짢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대신 광보(廣報)를 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무렵 일본 정부의 상용 한자 가운데 홍(弘)자가 없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본에 현대적인 PR이 시작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이 독립한 6년의 기간이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어느 한국인이 최초로, 언제 Public Relations를 홍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의 답변은 '모릅니다'이다.

다만 한 가지는 풀린다. 한국보다 먼저 PR을 홍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㉞



신인심

(전)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초빙교수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세대 광고인으로 국내 광고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기여했다. 은퇴 후 20여 년간 다수의 논문·저서 집필과 광고계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